

버선본

어머니!

누나 쓰다버린 습자지는

두었다간 뭇에 쓰나요?

그런줄 몰랐더니

습자지에다 내보선놓고

가위로 오려,

버선본 만드느걸.

× ×

어머니!

내가 쓰다버린 몽당연필은

두었다간 뭇에 쓰나요

그런줄 몰랐더니

천우에다 버선본놓고

침발려 점을찍곤

내보선 만드느걸.

一九三六、十二月初

버선본

어머니!

누나 쓰다버린 습자지는

두었다간 뭇에 쓰나요?

그런 줄 몰랐더니

습자지에다 내 버선 놓고

가위로 오려

버선본 만드느 걸.

× ×

어머니!

내가 쓰다버린 몽당연필은

두었다간 뭇에 쓰나요

그런 줄 몰랐더니

천 위에다 버선본 놓고

침 발라 점을 찍곤

내 버선 만드느 걸.

1936년 12월초